국민경선 vs 모바일 투표…경선룰 수싸움

추미애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룰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당내 설 연휴 전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논의 본격 착수…각 진영 유불리 놓고 갑론을박

文 당 장악력 높아 모바일 투표·비주류 국민경선제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룰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경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선룰의 최대 쟁점은 완전국민경선제와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당내 장악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당원 비중이 큰 경선 제도를 통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고,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높은 경선제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후보 경선과 국민참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이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완전국민경선에는 반대한다"며 "국민은 본선에서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며, 후보 결정은 당원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누가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겠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장성호 서원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1000만 촛불집회 후 벌어지는 특수한 선거"라며 "이런 흐름을 경선에 담아내려면 최대한 문호를 연 '개방형 시민경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비주류 측은 완전국민경선을 선호한다. 강창일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을 안 하면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 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는 정성호 의원도 "권리당원은 소위 '빠' 등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의 의사와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하는 박홍근 의원 역시 "촛불광장에 참여한 1000만 시민을 오롯이 담을 그릇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도 유불리가 엇갈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당원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이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론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병관 의원은 "기술적으로 보면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은행거래하는 시대에 정당에서 온라인 투표를 배제할 필요가 있겠냐"며 "배제하면 국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창일 의원은 "모바일 투표의 경우 조작 가능성도 있고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역시 "모바일 선거의 경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해산판결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투명성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결선투표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가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과반에 미달하면 2차 투표(결선투표)에서 비문주자들의 표가 결집할 경우,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지난 201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에도 쟁점이 됐었고 당시에는 문 전 대표가 첫 번째 경선에서 과반 지지율을 획득해 결선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경선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할 후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내 갈등 부른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文 지지자들 '개헌 저지 문건' 비판 의원들에 항의 문자 세례

박원순·이재명 등 "민주주의 파괴" 반발에 문재인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를 비판한 정치인들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성 '문자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비문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개헌 저지 보고서와 관련, 친문계를 비난했다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하루만에 항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받고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보고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다른 비문계 의원들도 문자폭탄으로 몸살을 앓았다. 박용진 의원은 '당을 떠나라', '개헌을 주장할 거면 입을 닫아라', '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것' 등의 문자를 대량으로 받았다.

일부 문자나 SNS에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설도 난무했다. 또 일부 의원에게는 욕설 의미가 담긴 '18원 후원금'이 후원 계좌에 입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당내 반발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식의 경쟁은 우리 단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당의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분란은 계속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경선 시작도 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됐고, 개헌 논의가 특정인에게 유리한지만을 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공당이고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자 폭탄'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jkpark@

호남 찾은 박원순 "문재인은 청산대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 첫 주말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

박 시장은 8일 새벽 군산에 들러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해양로어판장 경매시장을 방문했다. 이어 군산 경제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전주로 이동했다. 전주에서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했다. 박 시장의 호남행은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다.

박 시장은 특히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줄 세우며 분당이라는 폐해를 낳았다"며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문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이런 무능함은 구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모임인 '분권나라 2017' 창립대회 특강에서 ▲자치분권형 개헌 ▲지방정부 예산 두 배 확대 ▲행정자치부 폐지 후 자치지원청 신설 ▲지역 공헌세 신설 ▲시도지사-대통령 정기 협의 등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jkpark@

광주 온 안희정 "文 제치고 1등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국민의당이 모색하고 있는 반기문 영입 등 제3지대론은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킨 1990년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3당 야합과 같은 잘못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조기 대선과 호남정치'를 주제로 열린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표 페이스메이커 아니냐는 질문에 "초반에 죽어라 뛰어서 상대 후보를 지치게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인데 지금 사력을 다하는 사람은 문 전 대표"라며 "나는 여유 있게 따라가다 마지막에 1등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호남에 갇히지 않고 친노에 갇히지도 않을 것이다"며 "김대중 정신 광주항쟁의 정신을 민주당의 미래 정신으로 함께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광주 동구 KT 빌딩에서 자신의 지지 조직인 '더좋은 민주주의 광주·전남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특강을 가졌다.

한편 참여정부 때 '노무현의 입'으로 불렸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서갑원 전 의원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황이수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이 차례로 안 지사 측에 합류했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안 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기문, 팽목항·봉하마을 방문 계획

12일 귀국…당분간 민생 탐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이후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반 전 총장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장소의 상징성을 고려해 방문을 검토하는 건 맞다"며 "하지만 언제 방문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두 장소를 방문할 경우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직후 행선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만큼 순서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3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현충원은 사당동 자택과 가까운 거리다. 역대 대통령의 묘역도 모두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인 충북 음성의 선친 묘소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찾아뵐 것"이라고 반 전 총장 측은 전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 마포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다. 귀국 준비를 하는 광화문 모임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캠프'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조직 구성도 이 때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귀국하자마자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형태로"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반 전 총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간략한 발언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계획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피(뽕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봉, 서암온열뜸기, 아큐빔,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